

사순 제 5 주일

제1독서 : 예제 3,7, 12L-14

제2독서 : 로마 8, 8-11

복 음 : 요한 11, 1-45

이 주일의 화답송

주님께는 재비가  
있사옵고 풍요로운  
구속이 있나이다.

# 숲정이



## 라자로야, 일어나라!



김시몬 신부 / 여산 성당주임

“자매님, 이제 정말 예수님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얼마 전 병원에서 오랜 동안 암으로 고생하시다가 임종을 맞으시는 한 자매님께 임종을 준비시키기 위해 해드렸던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모든 준비가 다 끝나시기라도 하셨다는 듯이 가늘게 뜬 눈으로 신부를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던 그 자매님을 기억해봅니다. 지금쯤 그 자매님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을까요? 신부 말만 믿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간직한 채 편안하게 눈 감으셨던 자매님, 정말 예수님 만나 행복하시죠?

장례미사를 봉헌할 때마다 교우들에게 소리 높여서 “믿는 이들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고 외치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한 생명의 죽음이야말로 그 언제나 슬픔이요, 고통일 뿐입니다. 사순 제 5주일인 오늘 복음은 이 죽음의 슬픔과 고통의 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서 큰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지나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나자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구 라자로에게 이루어 주신 이 기적은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라자로처럼 죽음에서 살아 부활할 수 있다는 커다란 희망을 간직하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엄청난 기적 사건은 예수님 당신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시요, 부활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믿는 자들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시는 증표인 것입니다.

“라자로를 죽였다. 이제 그 일로 인하여 너희가 믿게 될 터이니... 그곳으로 가자... 많은 유대인들이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마르타와 마리아를 위로

하러 와 있었다. 주님께서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요한 11,14-27). 부활이 없다면 한 생명의 죽음은 인생의 끝장이요, 허무요, 영원한 단절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인생의 최대의 비극이요, 모든 것의 종말입니다. 인간의 모든 소망도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죽음은 이승에서 저승으로의 이별이기에 슬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사랑하는 사람, 정든 사람과 영이별을 할 때는 더욱 슬픈 것입니다. “네가 믿기만 하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 아버지 제 청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라자로야, 나오너라! 하시자 죽었던 라자로가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요한 11,40-44). 과연 믿음의 힘은 위대하며 믿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영광을 보았고 생생하게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생활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려면 각자 자신의 잘못과 열성이 부족함을 깊이 반성하고, 메마르고 허약한 영신을 거룩하고 풍요롭게 단장해야 합니다. 사순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느님께서 우리의 영신과 육체의 건강을 보살펴주시고 당신과 사랑과 생명의 관계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때입니다.

라자로야 일어나라! 어두운 무덤을 여는 이 말씀, 생명을 살리시는 이 말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 영원한 생명을 향해 라자로처럼 죽음에서 깨어나 일어납시다. 우리도 죄악과 죽음의 어둠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여 명

# 실직자 가정과 함께 하자

이 태 영(대건 안드레아)

중학교에 다니는 딸 아이가 학교를 다녀와서 하는 말이, '자기 반에서 실직자 가정이 무려 여덟 명이나 된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실직자 가정의 자녀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갈수록 자녀들이 늘어나서 선별을 해야 할 형편이란다.

정부에서는 이백만 여명의 실직자가 발생했다고 하지만, 부녀자들의 실직까지 합치면 수백만 명의 가장(家長)들이 실직을 한 셈이다.

이제 가장들의 실직은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매우 큰 사회문제를 만들게 될 것이다. 직장을 잃은 가장들이 허탈감 때문에 사회에 대하여 냉소적인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 가족과 자녀들이 받는 충격과 좌절감은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우리가 사는 주택과 아파트 단지 주위에 실직자 가정이 눈에 띄게 많이 생겼다. 그들은 우리와 더불어 여러 해 동안 회로애락을 함께 한 동네 사람들이고 친구들이다.

정부에서는 이 분들을 근본적으로 치유해 줄 아무런 대책도 없다. 일당으로 주는 돈 몇 푼으로 실직의 고통을 달래려고 하고 있다. 누가 이 분들과, 이 가족과, 이 자녀들과 함께 해야 할 것인가? 내 자녀와 학교에 함께 다니는 친구들이 결식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어야 될 말인가?

그들과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나서야 한다. 우리를 대신하여 퇴직하거나 실직을 당한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굶기는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보자. 굶는 아이들은 남의 자식이 결코 아니다. 모두 우리 자식들이다.

2천년 대희년을 향한 '새날 새삶 운동'이 교회 안에서 전개되고 있다. '나부터 새롭게, 참된 가정 이루기, 좋은 이웃 되어주기, 함께 가요, 우리'라는 네 가지 주제의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실직자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 가정만 참된 가정을 이룰 수는 없다. 동네에 사는 이웃들이 서로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함께 할 때만이 비로소 내 가정도 건강하게 되는 것이다.

'이웃 사촌'이란 말이 있다. '가까운 이웃이면 친척보다 낫다'는 속담도 있다. 내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하는 일이야말로 대희년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나랏님도 백성을 구제하기 어렵다'는 속담이 생각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와 신자들이 할 일은 무엇인가?

북 치고 장구치는 요란한 행사보다는 오히려, '우리 이웃을 우리 몸같이 사랑하는' 일을 조용히 실천하는 일이 필요하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해설(2)

## 저는 믿나이다 - 저희는 믿나이다(26~184항)

김선태 신부/ 가톨릭 신학원 교리부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총 네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 1편에서는 사도 신경을 해설하고 있다. 제 1편에서 '저는 믿나이다-저희는 믿나이다'(26-184항)라는 제목의 제 1부는 먼저 사도신경의 근본 성격을 밝히고 있다.

오늘은 이 근본 성격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는 주일 혹은 대축일 미사전례에서 사도 신경을 암송한다. 대부분 습관적으로 그리고 그 내용을 음미할 수도 없이 쓴살같이 암송해 버린다. 그러나 그 근본 성격을 생각하면 도저히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사도 신경의 근본 성격은 미사성제의 전체 구조를 바라보면 알 수 있다.

우리는 미사전례시 '독서'의 형태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응답으로 '화답송'을 바친다. 그리고 '복음'과 '강론'의 형태로 하느님의 말씀을 들은 후 '사도 신경'으로 응답한다. 따라서 미사성제 안에서 드러나는 사도 신경의 성격은 하느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신앙 고백문은 본래 하느님께서 역사 안에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행동하셨던 것에 대한 인간의 응답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인간이 홀로 되뇌이는 독백이 결코 아니다. 이 신경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위해 하셨던 구원행동을 전체로 하고, 바로 그 행동을 철저히 의식하며 하느님께 드리는 응답이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위해 먼저 행동하시고, 인간이 그 구원행동에 대해 신앙 고백으로 응답했다면, 신앙 고백은 일종의 대화적 구조의 근본 성격을 지닌다.

이처럼 사도 신경의 대화적 근본 성격을 고려하여, 교리서는 신앙을 간단명료하게 "하느님께 대한 인간의 응답"(제 3장)으로 정의한다. 이런 정의를 내리기 위한 준비로써 교리서는 제 1장과 제 2장에서 인간과 하느님의 존재를 각각 언급한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 물음은 하느님을 제외한 채 대답할 수 없다. 왜 그런가? 인간은 본래 하느님과 의 관계로 존재하는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가 설령 하느님을 잘 모르던지 혹은 의식적으로 하느님을 찾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간은 본래 하느님을 추구

하는 존재이다. "인간은 하느님에 의하여, 하느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다"(27항). 즉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느님께 대한 갈망이 깊이 새겨져 있다. 그 갈망을 채우지 않는 한, 인간은 끊임없이 방황하게 된다.

이런 내용을 교리서는 제 1장에서 "하느님을 깨달을 수 있는 인간"이란 제목으로 다룬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교리서는 이 물음 역시 인간을 등한시한 채 대답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인간과 인간의 역사를 등한시한 채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정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하느님께서 처음부터 역사 안에서 인간에게 당신 자신을 끊임없이 드러내 보이시고 내어 주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역사는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당신을 계시하시고 당신 자신을 인간에게 내어주시신"(68항) 구원역사이다. 이런 맥락에서 교리서는 하느님을 "인간을 만나러 오시는 하느님"(제 2장)으로 정의하여 소개한다.

이처럼, 인간이 본래 하느님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본질이라면, 그리고 하느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향해 다가오시는 분이라면, 인간과 하느님은 각각 완전히 뗄 수 없을 정도로 서로 깊은 관계로 존재하는 본질이다. 즉 대화할 수 밖에 없는 관계이다. 때문에 그리스도교는 대화의 종교이다. 지난번 교리서 해설(쥬정이 1999,1,10 4면)과 관련지어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의 품위는 하느님과 의 깊은 대화를 통하여 유지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하느님과 대화하는 사람이며, 이 대화를 통하여 이웃들과 참된 대화를 나누는 데에 힘을 얻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웃과의 대화를 통하여 또 다시 하느님과 의 보다 완전한 대화를 지향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느님과 의 대화는 모든 대화들의 원천이며 목적이다.

이처럼 중요한 하느님과 의 대화를 어떻게 올바르게 나눌 수 있을까? 그것은 사도 신경의 내용을 주의깊게 살펴볼 때에 가능하다. 신앙인들이 실로 오랫동안 그리고 변함없이 하느님께 드렸던 응답의 내용들이 사도신경에 집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님이 계시기에

# 씩어진 밀알 하나

매서운 비바람 속에도 숨어서 다가오는 봄이 느껴지는 3월 어느날, 순창성당 소속 동계 공소를 찾아갔다. 동계공소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레지오팀의 단장 김순남(바울라자매는 다가오는 봄만큼이나 화사한 웃음으로 우리를 맞아주었다.

▶ 동계 공소의 터줏대감 이시라면서요?

아이구, 아니예요. 아닙니다. 우리 동계공소가 1982년 10월에 축성됐는데 저는 1984년에 세례를 받았는걸요. 그후에도 집안 살림만 하다가 레지오 단원의 권유를 받고 늦게야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채 선임자를 따라다니다가 이렇게 단장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 처음 레지오 활동을 하실 때 공소 상황은 어땠었나요?

제가 처음 레지오 마리에 활동을 시작하던 1987년경에는 우리 동계공소에도 수녀님이 계시어서 유아원도 운영하시고 레지오 단원들도 젊은 분들이 많이 있어서 아주 활발하고 재미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분들이 직장관계로 동계를 떠나고 나니까 인원도 줄고 레지오활동도 약해졌어요. 그리고 신자들도 줄어들어서 오랫동안 공소가 침체했었는데, 이제 조금씩 제자리를 찾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곳 토박이들 7~8명이 고정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 그동안 바울라 자매님의 수고가 많으셨지요?

오히려 제가 공소일을 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처음에는 그냥 오려면 오고 가려면 가고 하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눈이 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제가 가진 시간이나 노력을 주님께 드린다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형제 자매들도 함께 도와주시고, 그래서 모든 일이 되어가는 것이지요. 정말이지 저는 아무 것도 하는 것이 없답니다.

▶ 공소건물 구석구석이 잘 정리되어 있군요.

매주일 저녁 본당 신부님께서 미사를 드리러 오시고 레지오 주최도 빠짐없이 하니깐 늘 조금씩이라도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레지오 단원 모두가 공소일이라면 집안일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고 싶지만 생업에 매달리다보니 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곧 부활절이 다가오니 단원들이 함께 모여 공소 대청소도 하고 성모님상도 한번 깨끗이 씻어야지요.



▶ 지금 레지오에서 계획하시는 일이 있으신지요?

이제 곧 부활절이 다가오니까 쉬고 있는 형제들을 방문해서 교회에 나오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이 천주교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는 편이거든요. 열심히 예비신자를 찾아서 교리반을 만들고 싶습니다.

▶ 공소발전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우리 공소는 지금 쉬고 있는 형제들까지 다 합쳐도 20여 가구밖에 안됩니다. 조출한 인원이라서 모두들 한가죽같이 지내고 있지요. 동계면이 그리 큰 곳이 아닌데도 개신교회는 세계나 있어요. 아무리 저희가 열심히 한다 해도 각자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고 선교활동도 미약합니다. 매주일 순창성당신부님께서 오셔서 주일미사를 드리 주시지만 공소에서 살면서 활동할 수 있는 선교사나 수녀님이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공소가 아주 활발해 질 것 같습니다.

처음엔 멧모르고 시작했고, 지금은 제가 하는 일이 거창한 것은 아니지만 하느님을 위해서 기쁘게 하고 있어요. 가끔 속상할 때도 있지요. 그럴땐 왜 내가 하느님을 알게 되어 이 고생을 하나 하다가도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지요.

## 옥불 찜질방 탄생

(춘천 玉山家)

80°C 불가마에서 달겨진 연옥 옥석으로 하루 하루 달라지는 건강을 체험하십시오.

대표 : 홍 만 희/ 조 은 히(루치아)

김제 IC옥불 찜질방(금구면 소재지 중점)

(준비물 - 면T셔츠, 면반바지, 수건)

☎ (0658) 543-5588, 5535

\* 이표를 오려서 가져오신분은 세사림까지 3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김희민 정형외과

가톨릭 공제조합 지정병원

김희민(루가)

남전주 전화국 앞

(구 영광주유소 자리)

☎ 226-7600~1

1급 정비업체

## (유)서부자동차공업사

자체검사 실시

전인차량 주야대기

사고차량 시내무료견인

김희수(안드레아)

김순덕(카타리나)

서부우회도로(서곡교 옆)

☎ 211-3533/011-659-1145



1999년 성부의 해 -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가는 해

"뉘우침 → 고백 → 보속 → 용서"

고해성사는 죄로부터 돌아서서 더 나은 삶을 살고자 돌아서는 것을 경축하는 성사이므로 종종 화해 성사라고 불린다. 화해라는 말은 죄나 소의로 단절된 조화를 다시 건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화해 성사 예식에는 회개에 대하여 성서가 말하는 기본 요소들이 네 가지 행동들로 포함되어 있다. 곧, 저지른 죄에 대한 고해자의 슬픔과 뉘우침의 표현, 죄의 고백, 잘못된 것에 대한 보속의 약속, 마지막으로 죄의 용서가 그것들이다. 이 네 가지 요소들은 무슨 일이 있었으며(회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죄의 고백과 용서),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회개를 지속하기 위한 보속 행위)를 표현하고 있다. 이 성사에서 우리는 과거에 주어지고 표현된 하나님의 자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 사함과 화해, 그리고 앞으로 있을 그리스도 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위한 쇠신 역시 경축하는 것이다. 회개, 용서, 죄 사함, 그리고 화해는 성사적 과정에서 모두 필요한 단계들이다. 고해성사 거행에는 세가지 형식이 있는데, 개별 고백, 공동체 안에서 개별적으로 고백하는 방법, 그리고 일반 사죄가 그것이다. 어떤 형식을 이용하든지 환영, 말씀의 전례, 고백, 사죄, 찬미의 선포, 그리고 폐회로 이루어진다. 고해성사의 이 세 가지 형식들은 모두 회개와 화해를 경축하며, 또한 전체 공동체의 신앙을 표현한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여러 고해자들이 고해하는 두 번째 형식은 개인적 회개와 생활 개선의 필요를 보여주는 다른 형식들보다 죄의 사회적 측면과 성사의 공동체적 특성을 더 명확하게 드러낸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고해성사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다른 모든 성사와 마찬가지로 고해성사도 전례 행위이다. 이 전례의 거행은 보통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이루어진다. 사제의 인사와 축복, 양심을 비추고 통회를 일으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 뉘우치도록 권고함, 죄를 인정하고 사제에게 밝히는 고백, 보속을 주고 받음, 사제의 사죄경, 감사의 찬미, 사제가 고해자를 축복하여 돌려 보냄 등"(1480항).

고해성사는 즐거운 성사이다. 고해성사는 고해자와 하나님, 그리고 고해자와 공동체 사이의 새로워진 관계를 경축하기 때문이다. 매일의 삶에서, 성사를 거행하기 전과 후에,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와 화해를 이루고자 한다. 우리는 모두 용서받을 필요가 있다. 용서를 청하거나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의식하는 성숙한 행동이다. 용서를 청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해진 손상을 너그럽게 보아 주고, 상대방이 그렇게 할 마음이 없을때라도 관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사랑의 최고 행위이다. 상대방이 우리의 행동을 받아들이기 싫거나 받아들이 수 없을 때에는,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다. 상처가 크거나 오래가는 것일때에는 용서가 굉장히 어렵다. 용서는 의지의 행위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라면 용서와 화해, 그 둘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 「대희년을 준비하며 - 하나님 아버지」 참조 -

기쁘고, 은총의 대희년 2000년 대희년까지 279일 남았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알고 먹읍시다 - 수입식품

세계 최대의 식량 수출국 미국은 수출 곡물 30% 이상이 유전자를 조작한 품종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식품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이유가 소비자를 위해 영양이나 맛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산량을 늘리고 가공과 저장이 쉽도록 하는 것이라는데 있습니다.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할 수 없는 유전자 조작 식품과 장거리 수출 여행에 오래 견디도록 방부제로 절인 수입 농산물이 우리를 계속 위협하고 있는 이때 우리 농산물 애용이 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심이 (1937) 김병오



한국외방선교회 성소모임

- 일시 : 1999년 3월 28일(일) 오후 2시
- 장소 : 광주 가톨릭센터 616호 (광주시 동구 금남로)
- 문의전화 : (02) 3673-2525
- 대상 : 외방선교사제를 지망하는 교교생, 대학생, 일반(미혼)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 성소모임

- 일시 : 3월 28일 오후 2시~5시 (매월 넷째주일)
- 장소 :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 삼랑진 본원
- 문의 : (0527) 352-4241
- \* 성령세미나를 참여한 분들로써 더욱 성장된 성령안의 생활을 갈망하시는 고졸이상의 미혼여성 환영합니다.

**디다케 몬테소리놀이방**

박 행 숙(글러리)

호성동 동신아파트 2동 106호

☎ (0652) 245-4181

**토탈 패션**

**I M A+**

영캐주얼, 보세의류 전문 패션물

김 문 식(베드로)

심 점 순(데레사)

객사뒤 K.F.C 앞

☎ (0652) 231-7853

**영창피아노 전주중앙점**

- 장, 단기 할부판매
- 중고보상 판매
- 조율 및 운반전문

전 상 진(베드로)

유 명 숙(요안나)

☎ (0652) 252-0103-4

284-6085/284-9989

(구. 서중로타리 동원증권 맞은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재교육**

- 일시 : 4월 7일~9일
- 오후 1시 30분~4시 30분
- 장소 : 전동 성당 교육관
- 대상 : 전주교구 사회복지회에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학교 교육을 받은 모든 분
- 문의전화 : (0652) 245-5119
- 전북 원주군 소양면 해월리 849-1 성 비오로 복지 병원

사 목 단 상

밤 중 별곡



김진룡 신부/ 복자 성당 주임

삐이익!

작지만 분명히 사제관의 철문을 여는 소리가 분명했다. 잠을 청하려 눈을 감은지가 얼마되지 않았지만 순간적으로 자명종 시계의 불을 밝혀 시간을 확인했다. 11시 30분. 이 늦은 시간에 사제관 문을 조심스럽게 밀쳐대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재빨리 뭔가를 손에 쥐어야 한다는 생각에 두리번 거렸지만 막상 눈에 띄는 것이 없었다. 쾅대신 닭이라고 옷목에 걸어두었던 터진 테니스 라켓을 거머쥐었다. "내 이놈을..."

조심조심 문 손잡이를 돌렸다. 삐뚤고 고개를 내밀어 마당의 동정을 살폈다. 깜깜한 마당이었지만 분명히 사람의 그림자가 이곳 저곳을 두리번 거리고 있었다. 대문과 식당사이의 열거름, 탐색이 끝났다는 듯 성큼성큼 걸어가 식당 문앞에서 발길을 멈추어섰다. 손잡이를 몇번 흔들어 보고 고개를 내밀어 틈새가 없나 살펴보더니 이내 허리를 굽히고 아랫틈새를 살피는 것 같았다. "바보같은 자식, 그 문은 힘을 조금만 더 세계 잡아당기면 열리는 데..."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한참이나 두리번 거리던 사내가 이윽고 몸을 돌려 다시 사제관 철문쪽으로 향하였다.

마른 침을 추스르며 숨을 죽이고 사내의 동정을 살피는데, 사내는 뭔가 인기척을 느꼈는지 갑자기 사제관 뒷문을 살피는 것이 아닌가. 삐뚤고 열린 문을 닫을 여유가 없었다. 다만 들키지 않으려고 몸을 움추리며 생각하였다. "혼자가 아니면 어찌지?" 다행히 사내는 다른 이상을 느끼지 않았는지 다시 대문을 향해 저벅저벅 발길을 옮기고 있었다. 불안감을 느꼈지만 이대로 저 밤손님을 성한 몸으로(?) 보낼 수는 없었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뒤를 놓칠 수가 없었다. 터진 라켓을 다시 움켜쥐고 비장한 각오속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를 따랐다.

사내는 이미 성당의 지리에 익숙한 듯 교육관의 모퉁이를 돌아 교육관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느님은 역시 내편이구나." 교육관내의 모습은 눈앞에 선하게 그려져 있다. 몇시간 전, 사목희

의로 넓은 홀의 중앙에는 책상과 의자가 놓여져 있고, 좁은 통로 주변에는 접이식 의자가 불규칙적으로 세워져 있다. 공간의 정면에는 칠판, 소파 그리고 탁구대가 놓여져 있다. 좌, 우측으로 잘 열리지 않는 문이 하나씩 있지만 그것은 희의를 마치고 나올 때 이미 단속을 하고 나온 터였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던가? 암흑속에서 헤메게 될 저 친구보다는 훨씬 내가 유리한 입장이라 여겨졌다.

"교회의 재산을 지켜야 한다. 낡고 불품은 없지만 저 의자와 책상을 마련하기 위해 신자들의 정성이 얼마나 했던가 ... 이제야 말로 나의 '비룡필산' 권법을 세상에 선보일때이다."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아랫배에 기를 밀어넣었다. 자세는 낮춰 기마자세이다. 눈은 날카롭게 가늘게하고 시선은 70도쯤 좌측을 주시하였다. 터진 라켓은 허공을 향해 곧추세웠다. 조심조심, 열린 교육관 문쪽으로 게걸음을 하였다. 엉덩이 아랫쪽으로 흐르는 팽팽한 충만감에 이르자 두려움도 없어졌다. 이제는 고향을 지르고 적진을 향해 돌진만 하면 상황종료일 것 같았다.

"끼이야-얍!" 하마터면 기압이 터져나올 뻔했다. 몸은 앞으로 쏠려 선을 넘지 않으려는 듯 간신히 한발로 중심을 잡았다. 교육관내에는 네 다섯의 사내들이 모여있지 않은가. 잘해야 병원신세를 면하는 순간이었다. 사내들은 저희들끼리 몇마디를 하더니 이내 우루루 사제관쪽으로 튀쳐나오는 것이 아닌가? 간발의 차로 교육관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사내들을 주시하는데 사내들의 큰소리 "신부님, 주무시나요?"

"아니 저들은 그 옛날의 베드로와 그의 일당들이 아닌가?" 저들의 신원이 밝혀지자 아랫다리에 힘이 좌악 빠지고 곧추세웠던 너털거리의 라켓은 땅에 떨어졌다. 조명이 켜지고 "느그들 이 야심한 밤에 웬일이야" 불멘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러자 "신부님은 파자마바람에 신발도 안 신고 그 라켓은 웬말인가요" 한 바탕 웃음바다가 되었다. "신부님 출출하실까봐 호떡 사왔는데요" 멧적은 듯 뒷머리를 긁으며 야고버가 비닐봉지 하나를 내밀었다. 소주잔도 허공을 갈랐다.

장난감 대어점 & 놀이방  
**장난감 병정**  
전품목 리필 타익스 스텝 그 장난감  
조수 현(젤뚜르디)  
이웅(분도)  
덕진공원 입구 주유소 옆  
☎ (0652) 253-6060  
H·P 011-676-6458

**「솔고」 슬라이온 치료기**  
성인병예방 치료 무료개방  
요통, 관절, 신경통,  
불면증, 교통사고 후유증  
양인 호(베드로)  
전주관광호텔 사거리  
☎ (0652) 285-2058  
뼈와 골다공증에 좋은 홍화씨  
(원액)도 취급합니다.

**남 부 장 의 사**  
잔디, 묘지이장, 수의, 석관  
임실 호남 장의 버스 주야 대기  
최창식(젤리스티노)  
문정옥(루시아)  
남부시장내 수산시장 앞  
☎ (0652) 284-4000  
288-3530  
(휴) 011-678-3530

**죽림리조트 유행온천**  
당뇨, 피부병, 신경통 위장예 특효  
사우나, 대중탕, 가족탕, 여관  
이봉근(바오로)  
국장호(요셉)  
☎ (0652) 232-8832  
(0652) 232-8757



권해드립니다

- ◆ 사회교정사목후원회원 1일 피정
  - 때 : 3월 22일(월), 오전 10시
  - 장소 : 전동성당
  - 준비물 : 미사도구
  - 강사 : 이 아빌라 데레사 선생님
  - 참가비 : 3,000원(점심제공)
- ◆ 레지오 단원 교육
  - 때 : 3월 22일(월) · 장소: 중앙성당
- ◆ 익산 사랑의 다리 월례미사
  - 때 : 3월 22일(월) 오전 10시
  - 장소 : 창인동 성당
- ◆ 새사제 연수
  - 때 : 3월 25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교구청
- ◆ 은혜의 밤 철야기도회
  - 때 : 3월 26일(금) 밤 11시
  - 장소 : 전동성당

- ◆ 지속적인 성체조배 봉사자 협의회 사순절 피정
  - 때 : 3월 25일(목) 오후 1시
  - 장소 : 효자동 성당
  - 강사 : 이병호 주교님
- ◆ 혼인강좌
  - 때 : 3월 28일(주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가톨릭 센터
- ◆ 기억할 사제
  - 3월 23일, 이태규(요셉)신부, 30주기
- ◆ 이태주 신부 주소 변경
  - Rev. Aloisius Lee. T.J
  - St. Francis Choe Catholic Misson
  - 8051 Rampart Road Jacksonville. FL. 32244 U.S.A
  - TEL: 001(2) - 1 - 904 - 573 - 1883 (FAX 겸용)
- ◆ 광주 가톨릭 대학교
  - TEL: (0613) 337-2181~4
  - FAX : (0613) 337-2185

**성사와 성사성**  
 버나드 쿠크/ 리순성 역/ 4,500원  
 성사는 인간의 삶속에서 인간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총이다. 이 책은 사람들이 인간적이면서도 그리스도교적인 삶의 기본적인 성사성을 이해하고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묵상기도**  
 루이스 드 그라나다/ 박성운 역/ 6,000원  
 스페인의 대영성가인 저자의 묵상에서 발췌한 5주간의 아침, 저녁묵상, 구체적인 묵상의 방법을 제시하고 한달간의 묵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따르도록 도와준다. 사순시기의 묵상에 많은 도움을 주는 책

성 소 모 임

수 도 회	시 간	장 소	문 의
바로로말수도회	매월 첫째주일 오후 2시	바로로말 서원	(0652) 252-3398
사랑의 씨튼 수녀회	매월 첫째주도 오후 4시	삼천동성당 수녀원	(0652) 281-0441
부산성베네딕도수녀회	매월 둘째주일 오후 2시	호성동성당 수녀원	(0652) 244-0094
살트르성바오로수도회	매월 둘째주일 오후 2시	이리 창인동성당 수녀원	(0653) 858-4724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	매월 셋째주일 오후 2시	서학동성당 수녀원	(0652) 284-2276
동정성모회(전주,이리)	매월 셋째주일 오후 2시	평화동성당 수녀원	(0652) 232-5004
살레시오여자수도회	매월 셋째주일 오후 2시	정읍 연지동성당 수녀원	(0681) 533-2578
예수성심전교수녀회	매월 셋째주일 오후 2시	삼천동성당 수녀원	(0652) 226-3487
인보성체수도회	매월 넷째주일 오후 2시	중노송동 본원	(0652) 284-3231
곧네펀알프란치스코회	매월 첫째주일 오후 2시	노송동 인보성체수녀원	(02) 793-2070
살레시오수도회(남자)	매월 셋째주일 오후 2시	노송동 인보성체수녀원	(062) 512-0332
미리내 천주성삼수도회	3월 28일 오전 10시	가톨릭센터 1층 회의실	(0334) 674-1251

감사드립니다

저희 성당의 손올리아 자매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분들이 많은 기도와 도움을 주셨습니다. 호소문이 실현후 한달도 못되어서 수술비와 치료비가 마련되었고, 신장기증의사를 밝힌 분도 여럿됩니다. 아직은 수술을 기다리는 중이지만, 하느님의 은총과 수많은 은인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느님과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팔복성당 송영진 신부

**노송신협 슈퍼마켓**  
 부식납품전문  
 · 풍년제과 직영점  
 · 목우촌 정육, 햄직판장  
 (조합원은 장려금을 드립니다)  
 이 정 호(마르크)  
 안 병 옥(마르타)  
 전고정문앞 노송신협 2층  
 ☎ (0652) 231-5270

**전 일 관 광**  
 신혼여행전문  
 금강산 관광  
 관광버스 대절  
 조 선(안토니오)  
 ☎ (0652) 288-6666

**예일연예기획**  
**예일아코디언교습소**  
 연예행사 출장 반주  
 아코디언, 기타, 만도린  
 전자율겐 개인지도  
 ☎ 221-5366  
 (휴) 016-651-5233

**자동차보험 전문회사**  
 (주) 에이프러스윈 전북사업본부  
 (총괄법인 대리점)  
 본부장 이 성 기(세베리노)  
 정 성 욱(리드비나)  
 ★ 영업소 및 사용인 모집  
 천주교 서신 신협 3층  
 ☎ (0652) 251-3930-2

**송천 정형외과의원**  
 개 원 인 사  
 진료과목 : 정형외과  
 (골절, 관절염, 골다공증  
 허리 · 목 디스크)  
 전문의 : 박 영 주(세레자 요한)  
 송천 초등학교 후문 옆  
 ☎ (0652) 274-1053-5

**원 아 모 집**  
**해나라 아가 놀이방**  
 대상 연령 : 0세~취학전 아동  
 유치원 정교사(4년전공)자격증중  
 가진 원장과 교사진  
 박 명 선(젤 마)  
 송천 주공 아파트 105동 103호  
 ☎ (0652) 253-5515

**LG 에어컨 예약**  
 15~23% 할인 + 6개월 무이자  
 식당용 냉장고 파격세일  
 백제로 빙상경기장 건너편  
 원 승 연(도밍고)  
 ☎ (0652) 241-2000

**가 나 석 유**  
 보일러 등유, 사무실 난로 등유  
 보일러 무료 점검 서비스  
 \* 신속배달  
 대표 : 임 영 님(글라라)  
 ☎ (0652) 286-5151  
 (0652) 285-9495

## 북전주지구 본당소식

### 덕진

주임신부 272-5303 사무실 272-5302 주임신부 박찬길  
 보좌신부 252-0383 수녀원 272-5304 보좌신부 김희우  
 FAX 271-1937 유치원 252-0384 사목회장 이종우

1. 금주 모임 : 사제양성후원회비 납부주일(미사 전후) ① 성모회, 성 프란치스코회, 작은 형제회, 대건회 - 교종미사 후 ② 아치에스 행사 - 무염시테, 성모성심 Cu - 오늘 후 2시 ③ 안나봉사회 - 22일(월) 전 10시 ④ 구역(반)장회의 - 25일(목) 전 11시 ⑤ 병자봉성체 - 26일(금) 후 2시
  2. 공동 참외 예절: 25일(목) 저녁미사 중
  3. 유아 세례: 27일(토) 어린이 미사 후 ※ 미사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4. 판공성사 일정안내: 23일(화) 덕 23~28만, 24일(수) 덕 29~33만, 25일(목) 덕 34~38만, 26일(금) 팔 1~6만, 27일(토) 팔 7~9만, 기타반 \* 시간 - (평일) 전 9시 30분~12시, 후 7시~9시 (토) 후 3시 30분~5시 7시~9시 (주일) 전 8시 30분~12시, 후 7시~9시
  5. \* 미수원 교부금을 완납하시고, 99년도 교부금을 빠짐없이 신청바랍니다.
  6. \* 금식기도 일정안내: 22일(월) 덕 14, 15만, 23일(화) 덕 16만, 24일(수) 덕 17만, 25일(목) 덕 18만, 26일(금) 덕 19만, 27일(토) 덕 20, 21만, 28일(일) 덕 22, 23만 6. 성 금요일 십자가의 길: 친호 피정사의 집, 참가비 - 1천원 경기장앞 - 출발, 장소 - 청호성지, 참가비 - 1천원, 접수 - 사무실 \* 이날 차량봉사에 주실 분 감사합니다(사무실) 7. 감사 헌금: 강 스텔라 1만원
  8. 선교활동 후원금: 작은 형제회 10만, 예수성심수녀회 10만
  9. 금주 전례: 해설 - 정영석, 독서 - 박용철, 김준자, 봉헌 - 덕진 10만
  10. 차주 전례: 해설 - 김용영, 독서 - 이석관, 강양규, 봉헌 - 덕진 11만
  11. 금주 침소: 4월 3일(토) 후 2시 - 진복회, 성모 마리아 Pr.
  12. 차주 침소: 4월 10일(토) 후 2시, 중교학생회, 착한의전의 어머니 Pr.
- 지난주 봉헌금: 1,184,580원 □ 교무금: 1,692,000원

### 동산

주임신부 212-3232 사무실 212-3231 주임신부 김진화  
 FAX 212-3722 수녀원 212-3233 사목회장 최승호

1. 오늘 모임 : ① 제대회 총회 - 전 11시, 교육관 ② 레지오 아치에스 행사 - 후 2시
  2. 주간 모임 : 1. 부활영세자반 예비신자 집중교리 - 23일(화), 24일(수) 후 7시 30분, 사무실 2층 ② 판공성사 - 25일(목) 전 9시~후 9시 ③ 초동부 자모회 - 27일(토) 후 3시
  3. 차주 모임 : ① 주님수난성지주일 행사 - 공식미사 중 ② 구역(반)장회의 - 전 11시 ③ 사제양성후원회 - 전 11시 ④ 본당 대청소의 날
  4. 침소 안내 : ① 금주 - 도움의 어머니 Pr. ② 차주 - 매괴의 모후 Pr.
  5. 금주 전례: 해설 - 김현식, 독서 - 유종석, 최미선 봉헌 - 이근영, 황승희
  6. 차주 전례: 해설 - 최정진, 독서 - 손순태, 노경례 봉헌 - 김용문, 임윤순
  7. 사제관 수녀원 봉헌금(단위-만원) : 조정희 4만 신립누계 - 9,063, 입금누계 - 7,053
- 지난주 봉헌금: 901,800원 □ 교무금: 1,082,000원

### 삼례

주임신부 291-8469 사무실 291-2018 주임신부 김순태  
 FAX 291-2018 수녀원 291-3196 사목회장 강영만

1. 금주 모임 : ① 안나회 - 공식미사 후 ② 레지오 아치에스 행사 - 후 2시 ③ 사목회 - 후 7시 ④ 성체회 - 26일(금) 미사 후
  2. 차주 모임 : ① 셋별, 승리의 여왕 꾸리아 - 후 7시 ② 애령회, 울뜨레아 - 공식미사 후
  3. 알림 : ① 합동 고백성사 - 신부님 4분 초청, 후 7시 30분 ② 수요일 미사 시간 - 전 6시 성체주례 - 수요일 저녁, 성체강복 - 목요일 저녁미사 후 ③ 매일 셋째주일은 교무금 납부주일입니다.
  4. 감사 헌금: 정재욱(마태오), 최계식(바오로) 신정순(프란치스카) 각 5만 \* 감사합니다.
  5. 차주 침소: 원후정
  6. 금주 전례: 해설특전 - 고정완, 공식 - 김세연 독서특전 - 최명준, 김경숙, 공식 - 김영두, 한순자 제물봉헌 - 고희기 부부
  7. 차주 전례: 해설특전 - 김옥화, 공식 - 윤천수 독서특전 - 배기승, 이인식, 공식 - 이광일, 이영애 제물봉헌 - 한충길 부부
- 지난주 봉헌금: 811,580원 □ 교무금: 1,065,000원

### 송천동

주임신부 254-2778 사무실 254-2777 주임신부 박대덕 사목회장 이진호

1. 금주 모임 : ① 오색회 - 공식미사 후 ② 레지오 아치에스 행사 - 후 3시
2. 성주간 전례에 적극 참여합니다 : 성지주일 부활 대축일에 새벽 6시미사 없습니다
3. 성가연습 : 22일부터 매일 있습니다
4. 부활판공성사 : 미사 전후에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5. 쉬는 교우들의 신앙을 적극 권면합니다
6. 1인 1명씩 예비신자를 인도합니다 : 입교신청서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7. 전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새로 오신 송천 1동 가족께서는 사무실에 접수바랍니다

### 상삼례

주임신부 291-0790 사무실 291-0832 주임신부 한병현 수녀원 291-0833 유채원(의정)291-1520 사목회장 이재갑

- ◎ 생활 말씀 :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 ◎ 99 부활 판공성사 : 로마서(신약) 쓰기
  1. 부활 판공성사 : 23일(화)~31일(수), 미사 전후 손님신부님 초청 성사 - 24일(수) 미사 전후 2 구역 판공 및 미사 : 23일(화) - 왕궁
  3. 부활 세례사 중단제 예식: 일요일 공식미사 전 4. 차주 모임 : 꾸리아 월례회 5. 예비신자 교리: 26일(금) 저녁미사 후, 일요일 전 9시
  6. 부활 영세반 예비신자 집중교리 : 26일(금) 후 8시 대부모와 만났던 방 - 27일 후 8시 7. 전임을 환영합니다 : ① 최은하(글라라) 주공아파트 104/1305 T. 291-5983 ② 김순동(분도) 주공아파트 102/404 T. 291-9049 ③ 이부연(투치아) 삼례읍, 리 256-7 T. 291-3346 ④ 김광준(대건 안드레아) 삼례읍 석전 307-23 T.261-5846 ⑤ 진경선(바울라) 대영아파트 297-10 T. 291-5688
  8. 감사 헌금 : 익명 10만 \* 감사합니다.
  9. 다음주(주님성지수난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10. 금주 전례: 해설 - 김윤오, 저녁 - 청년회, 독서 - 강신준, 신이목 강영숙, 제물봉헌 - 이기우 부부 11. 차주 전례: 해설 - 강신준, 저녁 - 청년회, 독서 - 허호, 이종준, 박순애, 제물봉헌 - 이상섭 부부
  12. 성당 침소 : 27일(토) 갈바리아 성모, 여왕이신 마리아 Pr.
- 지난주 봉헌금: 697,550원 □ 교무금: 720,000원

### 송천동

주임신부 254-8560 사무실 274-1004 주임신부 한기홍 보좌신부 254-8561 수녀원 254-1142 보좌신부 윤진영 F A X 274-1004 사목회장 장준식

- ◎ 성당지붕 보수공사에 우리의 작은 정성을 바칩시다(1구좌 5만원) : 장춘식 20, 장치규 4, 익명 4, 박종만 2, 김순도 10, 김중열 2 본당신부님 10, 도옥선 2, 수녀님 2, 김점분 10 \* 감사합니다.
  1. 레지오 아치에스 행사 : 오늘 후 2시 \* 모든 레지오 단원 참석바랍니다
  2. 초중고 학생 교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의 관심 바랍니다.
  3. 어린이 미사책이 새로 나왔습니다 : 자녀들을 위해 구입 바랍니다 - 3,500원 4. 예비신자 집중교리 : 23일~26일 후 7시, 예비신자께서는 꼭 참석바랍니다 \* 영세식은 27일 후 6시에 있습니다.
  5. 부활 판공성사 : 22일(월) 후 7시
  6. 가정 사목방문 : 23일(화) - 후 2시, 3구역 1번(서호아파트 201동) 25일(목) - 후 2시 3구역 2번(서호아파트 202, 203동) 26일(금) - 후 2시, 4구역 1번(신풍리)
  7. 병자 봉성체 : 24일 후 2시부터 집에 환자 계신분은 23일까지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8. 다음주일은 사순절 운동 2차 헌금 있습니다.
  9. 축일 예배 : 오늘 낮 12시, 신랑 - 김진태(바오로) 신부 - 정화숙
  10. 금주 본당 침소 : 8구역(비사벌 아파트 10~17동) 27일 전 10시
  11. 금주 전례: 해설 - 최용성, 독서, 봉헌 - 5구역(라이프 아파트)
  12. 차주 전례: 해설 - 손순식 독서, 봉헌 - 8구역(비사벌 아파트 10~17동)
- 지난주 봉헌금: 1,571,830원 □ 교무금: 1,657,000원

### 숯정이

주임신부 276-1320 사무실 252-7366 주임신부 김병환 보좌신부 252-1606 수녀원 252-9567 보좌신부 장성수 F A X 252-7366 사목회장 김인선

1. 안쓰는 물건 수집합니다 : 의류, 생필품, 전자제품 등
  2. 금주 모임 : 구세주의 모후, 능하신 동정녀 Cu - 공식미사 후
  3. 차주 모임 : M.E모임, 요한회 - 공식미사 후
  4. 부활 판공 성사 : 22일(월) 후 7시 30분 \* 손님 신부님 초청
  5. 구역분과 월례회 : 25일(목) 전 10시
  6. 교리교사 모집 : 봉사하실 분을 찾습니다. \* 수녀원에 신청바랍니다
  7. 영세식 : 27일(토) 후 7시 \* 특별교리 - 23일(화)~26일(금)
  8. 수녀원 건물 구입헌금 : 정점재 500만, 박경한, 심인부, 김종철 각 30만, 김영자, 오정근, 이종희, 신상균, 박용근, 서준석, 이승주 조영숙, 김현봉, 황호남, 박영자 각 10만, 홍은희, 오정윤, 익명 각 50만, 신봉애, 홍민기, 이광옥 각 5만, 송길용, 서서환, 오상욱 3만 서순영 2만, 성기준, 이숙, 정복식 각 20만, 송철자 12만 진순배 3천 총계 - 10,363,000원
  9. 다음주 본당침소 : 4구역 17번 \* 미사안내 : 셋별의 모후 Pr.(능하신)
  10. 금주 전례: 해설 - 심연우(아오스드), 독서 - 나병렬, 양연진
  11. 차주 전례: 해설 - 이현숙(젬마), 독서 - 김종윤, 최인자
- 지난주 봉헌금: 1,658,690원 □ 교무금: 1,587,000원  
 □ 2차 헌금: 501,150원

### 송천동

주임신부 254-2778 사무실 254-2777 주임신부 박대덕 사목회장 이진호

8. 금주 전례: 해설 - 현창호(바오로)부부 독서 - 이윤악(테오도로)부부
9. 차주 전례: 해설 - 김의식(베네딕도)부부, 독서 - 전혜부
10. 금주 침소 : 1구역 - (토) 전 10시
11. 차주 침소 : 2구역

이주일의 생활말씀 외우고 실천하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요한 11, 25)

□ 지난주 봉헌금: 853,520원 □ 교무금: 725,000원

쉬고 있는 교우에게 숯정이를 보냅니다.